



통권 52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6. 2. 13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지난 1월 18일, 고 문익환 목사 2주기를 맞아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에서 '늦봄 통일상'을 제정,
그 첫번째 수상자로 고 윤이상 님과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를 선정,
기독교백주년 기념관에서 기념식과 수상식을 가졌습니다. (관련기사 15쪽)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02)763-2606, 765-5282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짓밟는 보안관찰법을 폐기하라

서울지법 민사합의 제4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들에 대해 출소 뒤 일정기간 감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사회안전법으로 부당하게 감호처분을 받다가 이 법이 폐기되면서 풀려난 한백렬 씨 등 36명이 199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판결문은 '보안감호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재범의 위험을 막고 대상자를 교화시켜 사회복귀를 돋는 예방조치' 라며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여건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으로 감호처분한 것은 헌법

에 보장된 신체,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법원 최종심이 아니긴 하지만 인권보호의 마지막 발판이어야 할 법원이 시대정신에도, 법정신에도 어긋나게 인권문제를 낡은 냉전 잣대로 재단한 편협성을 몇가지 꼽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사회안전법은 국민기본권 침해 등 위헌성 때문에 폐기되었으며 이 법의 폐기로 감호처분 받던 이들이 조건없이(사상전향 등) 풀려남으로써 감호처분 자체의 부당성이 반증되었다.

둘째, 감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했지만 교도소와 다름없는 감호소에 갇혀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이 박탈당하는 등 죄에 대한 응보적 처우를 받고 있어 사실상의 형벌이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

셋째, 교화하여 사회복귀시킨다 함은 사상전향을 말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사상·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헌법정신과 인간존엄의 보편가치에 반하고 있다.

넷째, 사회안전법이 분단의 특수한 여건에서 제정되었다 했지만(75년 제정) 이미 72년에 남북은 사상, 이념을 떠나 민족대단결을 공동성명으로 합의한 상태였다. 오히려 유신독재의 지배수단으로 냉전논리를 맘껏 악용한 불필요한 반민족 악법이었을 뿐이었다.

이같은 사실에서도 사회안전법의 위헌성과 감호처분의 부당성은 분명했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위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은 마땅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사회안전법 대신 만들어진 보안관찰법도 똑같은 위헌성을 지닌 채 여전히 국민기본권을 짓밟고 있어 이 법을 없앨 것을 주장해왔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에서의 주거제한, 보안감호 처분이 없어진 대신 보안관찰처분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법관이 아닌 행정부의 결정으로 처분되고 한 번 처벌받은 일로 다시 처분당하는 점 등 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으며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침해 당하는 것도 사회안전법과 다름없다. 보안관찰처분을 당하면 3개월마다 중요활동을, 또 집을 떠날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하고 보안관찰 대상자와의 회합·통신을 해서는 안되고 집회시위 장소에 가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조건없이 따라야 한다. 만일 이같은 의무, 금지사항을 어겼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1세기를 내다보는 이른바 문민시대에 이같은 반인륜적이며 야만적인 기본권 제한 법률이 존재한다는 일이 부끄럽다. 지금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국가보안법(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잡입탈출, 편의제공), 형법(내란, 외환, 간접 이법의 미수 예비죄) 등 현행법 말고도 옛 국보법, 반공법, 국방경비법, 비상사태하의 특별조치령 등 관계조항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고 그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받은 사람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 수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어림되고 있으며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 법에 의해서 오랜 육고를 치르고 나온 많은 이들이 법을 어겼다며 경고처분을 받았거나 종교단체의 초청에 함께 만난 일이라든지 한 점포에서 같이 일하는 것까지도 회합이라 하여 회합금지 조치서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얼마 전엔 평양을 다녀온 문규현 신부도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고발조치 당했는가 하면 서준식 씨는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일까지 있다. 또한 지난 8·15 특별사면으로 45년 만에 풀려난 김선명 노인 등 8·15 석방자 환영을 위한 민가협 주최의 문화공연 때는 수백명 경찰이 집을 에워싸고 강제연금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과거청산과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해서는 5·18 특별법처럼 새 법을 만드는 일 뿐 아니라 시대정신에 어긋나고 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악법들을 없애거나 고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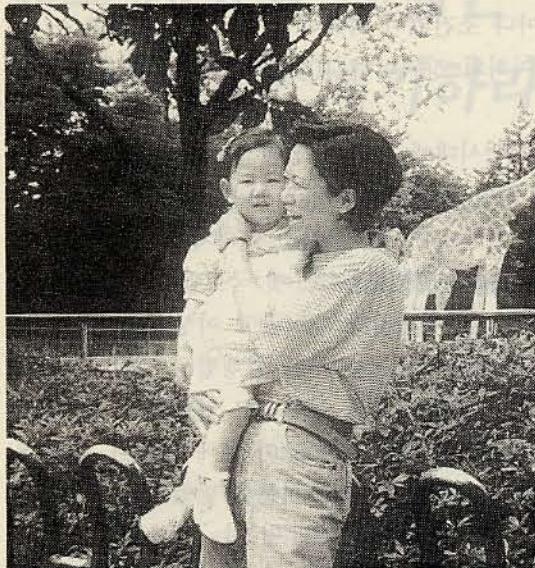
이제 이른바 문민 3년이 되었다. 변화와 개혁은 기본적인 인권보장에서부터 비롯해야 한다. 낡은 법과 제도, 낡은 사고는 과감히 고쳐야 한다. 다시 주장하거나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위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을 해야하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반민주악법을 없애고 그 법으로 아직도 둑여있는 양심수의 석방과 사면, 복권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통일운동의 길 위에

아빠는 지금 ‘출장’ 중

편집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부부의 모습은 닮아있다고 한다. 정화려(31세)·김혜애(30세) 씨 부부의 모습도 그러하다. 법정을 들어서며 방청석을 향해 인사하던 정화려 씨의 잔잔한 얼굴과, 언제나 생기를 잃지 않으려 밝게 미소 짓는 김혜애 씨의 얼굴 모습은 정말 닮아있다. 여기에 그들의 사랑하는 어린 딸 지민(3세)이의 해맑은 모습까지 더하면 보는 사람의 얼굴에는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떠오른다. 양심을 지키며 깨끗이 살아가는 한 가족의 단란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세 식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꼬마 지민이가 말을 배우기도 이전부터 지금까지 아빠는 기나긴 ‘출장’ 중이기 때문이다.

“첫들이 되기도 전인 9개월만에 아빠랑 헤어

겼는데 무슨 기억이 남아있다고 저리 끔찍히도 아빠 생각을 할까, 기껏은 정말이지 지민이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민이는 유난히도 아빠를 챙긴다. 지민이네 집에는 지금도 지민이가 챙겨둔 아빠 수건, 아빠 양말, 아빠 숟가락이 고스란히 있다. 지민이 나름대로 챙겨두고선 할아버지도, 큰아빠도, 할머니도 아무도 손을 뜯대게 한다.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채 생기기도 전에 지민이는, 어른도 알아보기 힘든 정화려 씨 주민등록증의 낡은 사진을 보고는 분명하지 않은 발음이나마 힘주어 “아빠다.”고 말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면회실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아빠.”하고 달려가는 지민이, 그 작은 머리, 작은 가슴 어디에 그처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아빠와의 끈이 든든히 자리잡고 있는 것일까. 김혜애 씨는 말한다.

“아이들의 마음은 순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른과 달리 복잡하지 않고 담백하고 깨끗하니까 아빠의 애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강하게 느낄 수 있지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그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것도 같고….”

담백하고 깨끗한 마음, 하긴 지민이는 그 얼굴 모습에서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빠인 정화려 씨를 그대로 빼닮았다.

이들 부부는 서로 선후배지간이다. 정화려 씨는 한양대학교 정외과 84학번, 김혜애 씨는 사



지난 번 면회가 끝날 무렵,

지민이는 드디어 참지 못하고 하고싶은 말을 하고 말았다.

“아빠,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아빠는 지민이를 달랜다.

“아빠는 공부 조금만 더하고, 지민이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엄마와 할머니 말씀도 잘듣고.”

지민이는 금방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와 헤어져 돌아온다.



▲ 세가족의 단란했던 시절

회학과 85학번이다. 그당시 대학을 다닌 많은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이들도 당연히 민족의 현실과 사회의 현실에 대해 치열히 고민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처음엔 굉장히 어려운 선배로 느껴졌어요. 철저하고, 원칙적이고, 자기자신에 대해 엄격한 사람이에요.”

신입생이었던 김혜애 씨에게 다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정화려 씨의 이러한 인상은 차츰 그와 함께 일을 해나감에 따라 호감으로 바뀌게 된다. 가까이에서 접해본 선배 정화려 씨는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한 것과는 달리 후배들에게는 그지없이 헌신적이고 따스할 수 없었다.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는 혼들림없이 지켜나가면서도 폭넓고 자상한 모습의 정화려 선배에 대해 후배 김혜애 씨는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의 헌신적인 모습에 대한 감동은 자연스럽게 애정으로 이어져 이들 부부는 1991년 6월에 결혼하였고, 1993년 9월에는 소중하고 귀여운 딸 지민이를 얻게 되었다.

지민이의 마음은 담백하고도 깨끗하다고 했다. 김혜애 씨가 보는 남편 정화려 씨의 마음도 그러하다. 마음이 맑은 사람에게는 직관력이란 게 있다고 한다. 마치 지민이가 자신의 눈으로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자마자 담백 아빠와 그 사랑을 알아본 것처럼. 옳은 일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구심이나 망설임이 없이 양심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온 정화려 씨의 마음 역시 맑고 깨끗하다.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정화려 씨는 대학 1학년 때 광주항쟁의 피의 기록을 접하면서 학생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때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이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살아왔다. 86년 건국대 투쟁과 87년 KBS 점거투쟁으로 두 차례나 구속되었지만, 양심의 소리에 순응하는 그의 해맑은 자세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하였다. 우연한 기회에 그는, 통일운동의 길에 한평생 전념해온 수학자이자 통일운동가인 안재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선생님의 일을 돋는 것이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길이라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만남은 이른바 ‘구국전위’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사건으로 둔갑되어 1994년 여름의 ‘주사파’ 정국을 열어젖히는 신호탄이 되고 만다. 양심의 소리에 따른 정화려 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분단조국의 반쪽 법정은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그는 이제 겨우 서른한 살의 청년이다.

아이들이 말을 배워 그들의 의사를 나름대로 표현하게 될 무렵에는 예기치 못했던 말들을 불쑥불쑥 던지곤 해 어른들을 놀라게 한다. 아이들다면 천진한 재롱에 웃음지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른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지민이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는 김혜애 씨도 점점 의사표현이 풍부해져 감에 따라 아빠를 찾는 지민이의



엉뚱한 말에 마음 아프고 곤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지민이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아빠는 언제나 철창 너머에 있고, 아빠가 지민이 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지민이가 아빠를 만나러 가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지민이는 아빠도 지민이의 곁으로 올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나보다. 어느날 지민이는 할머니의 등에 업혀 이쁜 아침 동네 골목을 나서게 되었다. 멀리서 예불 종소리가 들려오자 지민이는 조그마한 두 손을 모으고 채 분명하지 않은 발음으로, 그러나 너무나 간절하게 말했다. “나니아니타불, 우리 아빠 빨리오게 해주세 요-.”

사람들이 지민이에게 엄마는 어디 갔느냐고 물으면 “회사에 갔다.”고 대답을 한다. 그럼 아빠도 회사갔느냐고 물으면 절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무어라고 말할 지는 모른다. 지민이가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 김혜애 씨는 당분간 아빠는 멀리 출장가셨다고 말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뭐라 설명하기에도 어려운 나이, 지민이는 이제 겨우 세 살이다. 그다음부터 지민이는 누가 물으면 아빠는 지금 ‘출장’ 중이라고 이야-

기한다. 사실 정화려 씨는 1994년 6월 14일, 지방출장길에서 안기부에 연행되어 이제껏 지민이의 곁으로 못오게 되었으니 지금도 계속 ‘출장’ 중인 셈이다. 하지만 지민이 아빠의 이번 ‘출장’은 통일조국으로 가는 이정표를 하나하나 그 자신의 온 힘을 바쳐 세워 나가는 ‘출장’이기도 하다.

지난 번 면회가 끝날 무렵, 지민이는 드디어 참지 못하고 하고싶은 말을 하고 말았다. “아-

빠,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아빠는 지민이를 달랜다. “아빠는 공부 조금만 더하고, 지민이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엄마와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지민이는 금방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와 헤어져 돌아온다. 그러나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할머니와 엄마는 지민이 때문에 애를 먹었다. 어른들은 심란한 마음에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걸 지민이는 내내 기억하고 있다가, 당장 공책을 사달라고 한다. 아빠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다고, 빨리 공부해야한다며 공책과 연필을 사달라고 성화였다.

“아직도 지민이의 울음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아직도 지민이의 눈물 머금은 눈망울이 눈에 선하다. 지민이의 눈을 바라보니 문득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마 지민이가 나를 찾는 눈빛이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는 눈빛과도 통하기 때문인 것 같다. 어머니는 지금의 내 마음 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실 것이다.”

자신의 신념에 기반해 양심이 시키는대로 헌신해온 활동에는 조금의 회한도 없지만, 이와는 별도로 두고온 가족에 대해 갖는 애처로운 생각은 수많은

양심수들 모두가 갖는 커다란 고통이다.

정화려 씨는 지민이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통해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본다고 했다. 담장 밖의 자식을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이 이러할진 대 하물며 담장 안의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오죽하겠는가라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한 번도 자식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꿋꿋이 견뎌 나가시죠. 어머니께서 저렇게 강하시니



▲ 지민이를 무등태우고 있는 정화려씨.



지민이와 제가 얼마나 들판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이 없으시고 차분히 감내 하기만 하는 어머니도 분노에 찬 고향을 내뱉으신 적이 있다. 정화려 씨의 검사 구형이 있던 날, 새파랗게 젊은 담당 검사는 이제갓 서른의 청년을 무기징역형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주문하였다. 어느 어머니가 과연 그 순간을 참고 있을 수가 있었을까.

정화려 씨가 구속된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온 식구가 신문과 뉴스 보도에 민감하다는 점이다.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허탈해지기도 하지만 꼬마 지민이까지 뉴스 시간은 꼭꼭 챙길 정도가 되어버렸다. 아들을 위해 즐겨 음식을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요즘 그 낙을 잊어버렸다. 아버님께서는 내색은 하지 않으셨어 찬바람이 불어오면 먼저 속앓이를 하신다.

“동상은 한 번 걸리면 쉽게 낫지 않는단데….” 지난 두 차례의 감옥살이에서 동상으로 고생을 하던 남편 정화려 씨를 생각하며 김혜애 씨는 말끝을 잊지 못하고 목이 메인다.

남편 면회를 다니느라 구치소와 교도소를 다니면서 김혜애 씨가 새롭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감옥에 관한 이야기,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는 점이다. 비단 양심수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재소자들의 딱한 처지까지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항상 주위의 여러 사람들을 챙기는 남편 정화려 씨의 모습이 김혜애 씨의 선량하고 커다란 눈망울에서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듯하다.

“도무지 실감나지 않아요, 10년이란 기간이.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걸 보고는 오히려 제가 새삼스럽게 놀라게 되죠.”

단지 통일운동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몇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서른 살의 청년을 10년 동안이나 사회와 가족과 격리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가능한 것일까. 그것이 법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적인 양심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그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정화려 씨의 사건을 맡았던 한승현 변호사는 “재판도 심장을 가진 인간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화려 씨를 처벌한 ‘국가보안법’은 이 땅위에서는 인간의 심장과 양심위에 벼젓이 군림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법일 따름이었다.

김혜애 씨는 요즘, 각자가 있는 곳은 달라도 열심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자는 남편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고 한다. 남편을 감옥에 보내야만 하는 현실이 고통스럽긴 하나, 이러한 삶 역시 이들 부부가 학창 시절에 그처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던 통일조국으로 가는 한 길목이리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새해를 맞아 정화려 씨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이제 본격적인 30대의 삶이 시작된다. 20대에 가졌던 조급함은 다 털어버리고 다만 뜨거운 마음만은 고스란히 간직한채 살아가고 싶다. 한 평도 안되는 작은 독방에 내 육신은 갇혀있지만, 나의 모든 정열과 노력을 나의 가슴과 머리에 꼭꼭 응축시켜 나가고 싶다. 그리하여 이곳을 벗어나는 날, 더욱 큰사람이 되어 나서고 싶다 …”

지민이의 아빠처럼 기나긴 ‘출장’ 길에 오른 아빠들은 아직도 분단조국의 현실 속에서는 많다. 이땅의 수많은 지민이들의 아빠가 그들의 가족 곁으로 돌아올 날은 언제일까.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것은 더이상 이들 가족만의 뜻은 아닐 것이다.

보기 좋은 모습으로 서로 짙은 이들 부부가 다시 만나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더욱 힘차게 살아갈 날을 그려본다. 그리고 이들의 소중한 딸 지민이가 자라 철이 들었을 때는, 통일조국의 고된 여정 속에 기꺼이 온몸을 바쳐 헌신한 아빠의 이 ‘출장’ 길을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떠올려보게 되리라 믿는다.



안녕하십니까?

보살핌을 받고도 이제서야 편지를 드리는 예의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해 4월 서울지방노동청 앞 시위로 구속되어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 활동입니다. 제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은 지난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스스로의 몸을 불살랐던 현대자동차 양봉수씨의 죽음을 알리고 해고자를 탄압하는 노동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여일간 경찰 수사를 받은 후 5월 12일 구속영장이 정식 발부되었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거쳐간 안양교도소에 수감되고서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수인의 아픔을 겪으며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가 보다는 자유가 있는 세상에서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조차 박탈당한 이곳에서 그것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것이지요.

또한 가까운 사람에 대한, 특히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고마움과 집이 시골이라 면회를 오지 못하는 어머니 대신 재판과 감옥생활을 쟁겨주는 선후배에 대한 고마움, 생면부지의 저를 비롯한 많은 양심수의 석방과 후원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들에 대한 존경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신을 성숙시키는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모두의 요구와 투쟁으로 전두환, 노태우는 구속되었지만 그들 학살과 비리의 주범들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구속시킨 양심수, 장기수들이 기약없는 옥살 이를 하고 있고 양심수들의 자유를 빼앗은 반인권적인 악법은 여전히 수많은 이땅의 양심세력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 날씨보다 더 차가워진 제마음은 이 억압의 현실이 사라질 새봄을 기다립니다. 내일 목요일 차가운 겨울 거리에서 양심수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실 어머니들의 용기와 진실 앞에 따뜻한 기운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996. 1 안양교도소에서

이용덕 드림



일하던 사람이 일을 해야지요.

편집부

새 벽녘에 집을 나섰다. 겨울바람이 훌쩍 떠나를 올려 붙인다. 설령설령한 마음가짐으로 나선 내 정신이 버쩍 들도록 바람은 매섭고, 얻어맞은 불은 얼얼하다. 어제 밤 늦도록 친구들과 어울려 앉아 세상이 할퀴고 간 자리에 몇나지 말라며 서로 부어준 소독약, '소주'가 아직도 트림에 묻어 나온다. 찬 공기에 입김을 계속 후후 불어댄다. 선생님을 만나며 술냄새를 풍길 수는 없는 일이다.

오래 정역을 살고 나온 선생님들을 만나는 일은 나에겐 고문이다, 정신적 고문이다. 물매를 버티며 전향을 거부하신 선생님들을 만나는 일은 혹독한 매질이다,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는 매질이다. 힘이 되는 매질이다.

오늘도 나는 그 매를 달게 받으려 대전으로 간다.

대전을 경유하는 부산발 기차에 타며 허리를 꿰고 우선 심호흡을 한다.

선생님들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또 만남을 준비한다. 유성의 바람도 몹시 쳤다. 좀 남쪽으로 내려가니 바람도 한 숨 죽어 있으리라는 기대는 귀가 멀어져 나가라 부는 황량한 바람에 박살이 났다, 일격에. 그 찬 바람속에 두 선생님이 서 있었다. 김명수 선생님과 한장호 선생님. 두 선생님은 불이 버얼겋게 언 채 우리

36년의 모진 세월에서도
여전히 건강하신
김명수 선생님.



쪽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대전역에 내려 전화해 "지금 대전역이고, 구행이라 집을 우리끼리 찾을 수 있으니 그냥 계시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선생님들은 미리 차려입고 길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계셨다. 어서오라고.

김명수 선생님(75세)의 걸음은 청년처럼 힘차다. 그렇게 힘찬 김명수 선생님의 뒤를 쫓아 '사랑의 집'으로 향했다. 다섯 분의 장기수 선생님들의 보금자리인 '사랑의 집' 허름한 대문엔 다섯 선생님의 성함이 매직으로 쓰여져 있다. 당당한 문패하나 없는 것이 웬지 가슴을 썰렁하게 한다.

김명수 선생님은 1922년 5월 1일에 태어났다. 성실하고 우직한 노동자로 손마디가 굵은 선생님이 태어나신 날은 우연히도 노동절이다.

"어, 선생님 태어나신 날이..."

"그래요, 노동절이죠."

선생님은 건강한 치아를 내보이며 활짝 웃는다. 그 웃음에 너무 정이 묻어나 찬 몸이 단번에 식는다.

선생님의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시.

유년시절은 참 힘겨웠을 것만 같다. 아버님은 선생님이 9살 되던 해에 돌아가신다. 장남인 선생님의 어린 두 어깨에 어머니와 두 동생 그리



고 생활고를 달랑 남기시고.

운남 공립 보통학교를 졸업한 선생님은 사촌 형과 함께 농사를 짓다 18살 되는 해에 농사를 어머니께 맡기고 건설현장으로 뛰어든다.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지을 만큼 넉넉한 땅도 아니었기에, 선생님의 고향인 함흥은 공업도시라 일 거리가 많은 편에 속했다. 처음 선생님이 일자리를 잡은 곳은 본궁화학공장을 건설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선생님은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발판을 매는 일을 하셨다. 아직도 다부진 선생님의 어깨는 아마도 그때부터 그렇게 굵기 시작한 것일까. 선생님은 건강체질이다. 뼈가 굵고 몸도 좋다. 도무지 일흔 다섯의 노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다.

“선생님 어린 시절에는 힘이 좋아서 싸움도 잘하고 골목대장 하셨겠어요?” 하는 질문에 선생님은 고개를 세게 저으신다.

“나, 그런 무례한 짓은 안했습니다.”

그렇게 무례한 짓 모르고 건실하기만 하던 선생님에게 시대는 위기를 가져다 주었다. 일제말의 정용이 그것이다.

일제가 일으킨 미친 전쟁에 스스로 몰리고 있던 1944년 12월의 일이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순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징용 문제인거 같다는 생각이 들두만. 그래 자고 다음날 도시락을 들고 출근하는데 출근 길에서 순사부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무작정 나를 파출소로 끌고 갑니다. 한참 조서를 꾸리더니 조선 사람을 시켜 나를 데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끌려 간 곳은 정용 갈 사람들을 미리 모아 두던 곳. 대충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한 선생님은 밤에 취침나팔이 불자 한참 주위를 살핀 후 집으로 도망(?)을 나온다.

선생님은 우선 집에 들려 대충 일이 사태를 알려주고는 곧장 이웃사람에게 가 도움을 청한다. 당장 하루를 벌지 않으면 식구들이 굶을 처지이므로 고깃배 주인 이웃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배를 타기로 한다. 선생님이 번 돈은 그 이웃사람이 선생님의 가족에게 전해주기로 하고.

배에서 숨어 지내다 선생님은 해방을 맞으신다.

“그날 밤 동네사람이 와서 알려 주더군요. 이제 해방이 됐으니 집에 가서 자도 된다고. 그래서 거의 9개월만에 집에 들어와 잠을 자는데 방바닥이 움직이는지 같두만. 그동안 배에서만 잠을 자던 벼룩이 들었던 거지. 배는 물살을 따라 계속 움직이잖아요.”

선생님은 그날밤을 선명히 기억해 내며 결코 웃는다.

출렁이는 배에서 기다린 해방처럼 그후 선생님의 삶도 출렁인다. 시대의 격랑을 따라.

나이 스물넷에 맞은 해방은 선생님에게 온통 새로움이었다.

동네 청년들끼리 모여 ‘해방이 되었으니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으나 무엇을 어찌 해야 할지 몰라하며 이삼일을 보내던 선생님과 또래 청년들은 일본인들이 큰 공장의 설계도를 훔치고 나서 공장을 모두 파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공장사수에 나선다. 함흥은 당시 우리나라 최대의 공장지대로 용성기계공장, 화학공장, 비료공장 등 5대 공장이 들어선 곳이었다. 물론 큰 공장들 정문에는 소련군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동네청년들은 따로 사수대를 조직한 것이다.

그해 11월 선생님은 용성기계공장 노동자로 재취업한다. 그리고 공장내에서 조·쏘 문화협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하고 민청사업을 하며, 해방된 조국의 건설노동자로 새순같은 일꾼으로



생활한다.

그리고 전쟁.

풍산을 거쳐 갑산으로까지 후퇴를 했다. 함흥으로 다시 돌아온 선생님은 놀라운 소식을 접한다. 미군들이 후퇴를 하며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이라 소문내어 홍남 시민들의 대다수를 큰 부두 창고에 몰아 넣은 것이었다. 홍남시당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여덟명인가 아홉명을 잠복해 그 창고로 들여 보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기애 다이너마이트가 설치돼 있으니 빨리 빠져 나가야 한다’고 해 창고안에 있는 사람들을 3,4만명 구해 냈어요.”

미군이 홍남항에 합포 사격을 시작한 것은 다행히도 사람들이 빠져 나온 후였다. 전쟁 당시 용성공장의 당책임자이며 직장책임자였던 선생님에게 주어진 또다른 일은 장진강 발전소 댐공사와 성천강에서 쇠붙이들을 건져내는 일이었다. 미군은 후퇴를 하며 이북의 모든 발전소를 형체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했고, 함흥의 것줄인 성천강에 기차화통은 물론 온갖 쇠붙이를 쏟아부어 성천강을 막아 버렸다. 성천강의 범람으로 함흥을 완전 물바다로 만들 요량이었다. 댐의 복구공사와 성천강에서 쇠붙 이를 건져내는 일은 비처럼 쏟아지는 폭격하면서 진행되었다.

“얼마나 많은 쇠붙이를 쏟아부어 놓았던지 건져 낸 것을 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폭격속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자발성이 없었다면 억지로 시켜서는 못할 일이었어요.”

51년 6월 댐복구 공사에 열을 올리던 선생님은 도당학교에 들어가 3개월간 간부양성수업을 받는다.

정전후 전후 복구사업이 시작되며 선생님은 다시 용성공장으로 돌아가 일을 한다. 그리고는 억척스레 복구 사업에 매달린다. 미군이 철수하

며 말한 전쟁전 상태로 돌아가는데 적어도 100년은 걸릴거라던 그 폐허의 복구사업에.

“그때 인민의 힘을 느꼈지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아주 열성적으로 복구사업에 나섰습니다.”

57년 7월, 선생님은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작은 불씨가 되고자, 어린 눈빛에 초롱거리 는 한명의 딸과 두명의 아들 그리고 아내를 뒤로 하고 남으로 내려온다.

내려오는 도중에 바로 체포된 선생님은 20분의 재판으로 무기형을 확정받는다.

대전교도소, 전주교도소 그리고 다시 대전교도소에서 생활하다 93년 3월에 석방된다.

선생님은 36년을 꼬박 감옥에서 지낸 것이다. 그것도 전향공작의 모진 고문과 배곯음을 이기며 내가 세상에서 산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선생님은 감옥에 묶여 지내신 것이다.

선생님의 지금 고민은 취업이다.

노동자로 빠가 굵으신 선생님은 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으신가 보다. 그 연세에도, 선생님은 석방된 후부터 지금까지 그냥 논 일이 없으시다. 월 5만원 받으며 부화장에서 일을 했고, 계분(닭똥)소에서도 일을 했고, 월 30만원 받으며 휴일 한 번 없는 주차장에서 일을 했고, 또 주유소에서도 일을 했다.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을 해야지 어떻게 놈니까?” 선생님에게서 노동자의 우직함이 느껴지며, 가는 나의 손을 감추게 된다.

직장 구하는 문제로 나가 봐야 한다며 겨울바람을 힘차게 가르고 걸으시는 선생님의 등뒤를 따라 걸으며 착각에 빠져든다. 고되고 꽉꽉해도 마침내 가야할 길, 통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저는 지난 11월 16일 이른바 '애국동맹' 사건으로 구속된 7명 중 정재동의 처 조숙영입니다. 애국동맹사건은 이미 3년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당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된 분들과 학교 선후배라는 등의 이유로 7명의 성실한 가족들을 새로이 구속시킨 사건입니다. 저의 남편을 비롯한 7명의 구속자들은 3년전 남한조선노동당사건 당시, 사건과 별다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신변에 문제가 없었고 이후 목사로, 학원강사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능력있는 일꾼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에서 경찰은 저희 가족들을 가정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갑자기 3년이 지난 지금 저의 남편이 필요해 진 것입니다.

구속자들 중에 조국연, 기석분씨는 병중에 누워계신 아버님을 두고 부부가 함께 구속되어 아버지 병구환할 사람조차 없는 실정이고, 박철훈씨는 회사의 5억짜리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도중 구속되어 회사가 부도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조정현 전도사님은 개척한 지 얼마되지 않는 교회사업을 하다가 구속되어 교회도 문을 닫을 지경이고 사모님과 어린 두딸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의혹을 느낍니다.

첫째로 사건을 조작날조하여 언론에 보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저의 남편을 구속하려 와서는 "정재동씨가 조용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3년전 사건을 정리하자"고 말하고는 그 다음날 신문과 방송에는 '93년 조직을 재건하여 기관지를 내고 시위를 주도하고 각지에서 암약하였다'고 허위보도하였습니다. 그후 화가 난 가족들이 그 보도내용에 대해 짜증나면서 형사들은 "언론은 원래 믿을 것이 못된다" 우리는 그런 보도자료를 준 적이 없다" 그러나 어떻게 발표도 하지 않은 내용을 일제히 똑같이 보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경찰은 항상 이런 식으로 구속된 사람들과 가족, 그리고 국민을 속여 왔습니다.

경찰은 3년전의 사건을 빌미로 또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시국전환용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세력에 대한 증거없는 마구잡이 검거는 이런 확신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문민정부라고 자칭하는 김영삼 정권은 오히려 그전의 군사정권보다 더 공공연히 불법수사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기 문제입니다. 저희는 3년전 사건이후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숨어 산 적이 없이 모두 너무나도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입으로 말했듯이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지 무엇을 하고 사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경찰이 우리 남편들을 잡으려고 했다면 이미 3년전에 충분히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가운데 조정현 전도사님은 3년전 사건 직후 안기부 수사관과 직접 만나 사건을 정리하고자 다방에서 수사관들과 만날 약속까지 했는데 안기부에서 일방적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가만히 두다가 지금에 와서 그것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노태우씨의 구속날짜에 맞추어 연행한 것을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3년전 사건은 대선 직전에, 남편들의 구속은 총선 즈음이라는 선거정국에 일련의 간첩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연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3년 동안 업무태만을 하다 3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구속했던 말입니까? 이제껏 슬모없었던 우리 남편들이 왜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던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언론과 정부의 간첩늘음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땅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몇 년이 지난 후 이렇게 터무니없이 구속되어 정국의 희생양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땅에 저희 남편과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한사람이라도 속는 한 이땅의 죄없는 젊은이들을 또 이렇게 잡아 가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1. 1 - 새해를 맞이하여 지도위원님과 출소장기수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1. 3 - 민가협 사무국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1. 4 - 새해 첫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범민련으로 구속된 김영옥 선생님의 아드님이 아버지에게, 장창호 씨(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부인이 감옥안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이 있었습니다.
- 서울지검 조성우 검사는 전국연합 박충렬 사무처장과 성남미래 김태년 회장을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 양협의)로 기소했습니다.
-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박종철 열사 유족이 국가와 고문경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유족에게 1억7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5 - 노동해방열사 고 조수원 동지 전국노동자장이 경찰의 방해로 발인과 서울역 노제도 못하고 오후 늦게 서울대 병원에서 부산으로 영구차가 떠났습니다.
- 워싱턴 수도장로교회에서 겨울용품 보내기 성금으로 1000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충렬 씨 대리인 윤기원 변호사가 서울지검 공안1부 이기범 검사를 상대로 낸 검사의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받아들여 변호인 접견불허 검찰 처분은 위법이라며 불허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6 - 범청학련 남측대표 정민주, 이해정 후원회에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 정은숙 교수(문호근 선생 사모님)와 여러분이 텔조끼를 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7 - 박정숙 선생님께서 고된 활동을 하시다가 신우염이 재발, 한일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 임병호 선생님(혜명양로원)을 찾아 뵙고 텔조끼를 전해드렸습니다
-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는 보안감호처분의 위헌성을 들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회안전법에 의한 반국가사범 감호처분은 정당했다며 원고폐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 8 - 한일병원으로 박정숙 선생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 김도한 선생님께서 간헐성 협심증 등의 질환으로 보라매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1. 9 - 성동구치소 주명순 선생님(범민련)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 평동성당에서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농성단이 175일의 농성 끝에 해단식을 갖고 농성을 풀었습니다.
- 보라매병원으로 김도한 선생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1. 10 - 양심수 후원회 지도위원, 감사, 운영위원, 사무국 일꾼이 새해인사 모임 및 1월 운영위원회를 가졌습니다.
1. 11 - 부산지법 형사1단독 (정희상 판사), 부산수산대 전 총학생회장의 국보법사건 선고공판에서 복념 학생과의 통신교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강원경찰청은 9일 연행한 이용인, 김동규 씨를 11·11동맹가입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은 영장 기각으로 석방했습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박충렬 씨 부인, 11·11동맹 사건, 대우정밀 노동자 등 사례발표가 이어졌습니다.
- 권양섭 선생님께서 숙환으로 보라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1. 12 - 성동구치소 여사에 수감중인 양심수 7명이 치우개선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5일동안 벌인 끝에 부식 문제, 침구 등 재소자 처우를 개선하기로 약속을 받고 단식을 마쳤습니다.
- 영등포 구치소로 김병권 선생님(범민련)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 박종철 열사 9주기 기념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 김승훈 신부님(지도위원)께서 600,000원을 성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2·12,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전두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로 추가 기소(뇌물 9500억)했습니다.



- 한국전력 노조 한일병원 지부위원장 김시자 씨, 어용노조의 불법적인 징계에 항의하여 분신자살 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민가협 회원들, 한일병원 빈소 문상을 갔습니다.
- 1.13 -서울지법 형사9단독은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씨에게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1.14 -박종철 열사 9주기 추도 모임이 마석 모란공원 열사 묘지에서 있었습니다
-“통일의 집” 현판식이 수유리 박용길 장로님 댁에서 있었습니다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열사 투쟁기금을 위한 하루주막이 시립대에서 있었습니다
- 1.15 -광주지법 민사5단독(김재영 판사)은 전남대 총학생회 조통위원회 학생에 대한 복 대학생과 편지 주고받는 일과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1.16 -‘음성 꽃동네’로 유한옥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밖에 모시고 나와 이발도 하고 점심식사를 하시고 꽃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전강은 매우 좋으신 편이었습니다. 함께한 ‘통일맞이’ 서우영 님, 애쓰셨습니다
- 1.18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불고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보석으로 석방된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무죄판결(회합통신)을 받은 주우열(부산수산대 총학생회장) 씨가 나와 사건설명을 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고 늦봄 문익환 목사 2주기 추모제를 맞아 추모예배(기독교회관)와 묘소참배(마석모란공원묘지)가 있었고 저녁에는 추모식 및 제1회 ‘늦봄 통일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윤이상 선생님과 민주화실천기족 운동협의회가 늦봄 통일상을 받았습니다.
- 1.19 -고 박판수 선생님 4주기 추모모임이 양산 솔밭공원묘지에서 있었습니다.
-서울 북부경찰서는 한일병원노조 김시자 위원장 분신과 관련하여 농성을 하고 있던 노조원, 학생 등 79명을 강제연행하여 분신대책위원회 위원장(김채로) 외 5명을 구속하였습니다.
- 1.20 -범민련 사건으로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한기명(대구 경북 양심수후원회 공동대표)님을 면회하였습니다.
-[후원회 소식] 51호를 발송했습니다. 늦게 보내드려 죄송합니다.
- 1.21 -양심수후원회 1월 산행이 있었습니다. 평창동으로 올라 대성문 - 진달래 능선 - 4·19 국립묘지로 내려 왔습니다.
- 1.23 -양심수후원회 9, 10, 11, 12월의 일반업무와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12 12, 5 18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전두환 노태우를 내란혐의로 추가기소했습니다.
-[말] 96년 1월호를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 1.25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불고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보석으로 석방된 함운경 씨, 지난 12월 5년 만기출소한 제4기 전대협 송갑석 의장, 김시자 분신대책위원 김 용 씨가 함께 했으며 노래패 건국대 아침햇살이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현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는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 1.26 -서울지법 민사합의 1부는 김현철이 무자격 한약업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쓴 한겨레신문에 4억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 씨(보석으로 석방) 2차 공판에 생포간첩 김동식이 증인으로 나와 허인회 씨를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허인회씨는 만난 사실이 없음을 ‘현장부재증명’을 통해 진술했습니다.
- 1.27 -[후원회소식] 52호 편집회의를 가졌습니다.
- 1.29 -노태우 등 뇌물수수 사건 제3차 공판이 형사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민가협 회원들은 법원정문에서 “5·6공 비리주범 전원처벌과 양심수 석방”이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다 서경순님을 포함해 5명이 서초경찰서에 불법연행을 당해 8시간만에 풀려났습니다.



1. 30 - 대전 사랑의 집을 다녀왔습니다.
- 전국연합 사무처장 박충렬 씨 재판 1차심리가 열렸습니다.
1. 31 - 민가협 제11차 총회준비위원회 첫회의가 열렸습니다. 구성, 회의방식, 일정,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평가가 있었습니다.
- 95명의 양심수(5년 이하 기결수, 12월 구속된 미결양심수)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 만남의 집에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 출소장기수 12분에게 생활지원금을 드렸습니다.

민가협, 제 1 회 늦봄 통일상 수상

늦봄 문익환 목사님 2주기를 맞아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회장 김관석 목사)'에서는 통일운동의 실천적 선구자이신 목사님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또 이어가는 뜻으로 '늦봄통일상'을 제정, 그 첫번째로 고 윤이상 선생님(재독 세계적 음악가)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선정, 지난 1월 18일 기독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수상식을 가졌습니다. 민가협에 대한 한승현 심사위원장 심사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인권침해에 맞서 양심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가협은 1985년 12월 12일 창립이후 줄곧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등 제반악법 철폐, 고문추방 등 인권실현과 사회민주화, 민족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다. 모성애를 바탕으로 온몸을 바쳐 헌신적으로 인권실현을 위해 싸워온 민가협은 89년 고문수사 이근안 수배캠페인, 매년 겨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 양심수 석방 시민가요제 개최, 정기적 양심수 현황조사와 통계사업, 양심수에 대한 정기적인 영치금 차입, 출소장기수 후원사업, 악법 철폐 운동 매주 목요일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 등의 실천을 해오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민가협은 지난해 창립 10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10년간의 꾸준한 활동이 인정되어 제1회 늦봄 통일상을 받게 되었다.

2월 산행



▲ 새해들어 첫산행-눈 덮인 북한산 산성길을 지나, 진달래 능선의 벌거벗은 겨울나무를 위로한 한 순간.

언제 : 1996년 2월 25일(일)

어디로 : 도봉산 포대능선

모이는 곳 : 도봉산 입구 안내 표지판 앞

교통편 : 19번 버스종점. 1호선 도봉산역에서 내려

도봉산쪽으로 5분정도 걸어오면 입구가 보입니다.

준비할 것 : 도시락, 화비 3,000원



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지출계	비율 (%)
영치금·품	1,316,700	1,070,300	1,030,200	3,353,200	6770,400	24.4
출소자 지원	1,294,500	1,130,000	1,011,000	1,252,700	4,688,200	16.9
사무실 운영비	542,000	459,000	384,000	450,000	1,835,000	6.6
행사비	307,200	66,000	383,500	249,650	1,006,350	3.6
인쇄비	240,000	240,000	266,200	240,000	986,200	3.5
발송비 (영치금, 소식지 등)	319,620	327,300	350,530	682,650	1,680,100	6.0
비품비	19,700	22,800	12,800	130,850	186,150	0.7
연대사업비	50,000	80,000	80,000	240,000	450,000	1.6
운영활동비	212,700	373,700	252,000	372,100	1,210,500	4.3
활동비	900,000	700,000	700,000	700,000	3,000,000	10.8
장가협지원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4.3
석방기금	300,000	500,000	-	300,000	1,100,000	3.9
특별회계로 돌림	-	-	1,000,000	-	1,000,000	3.6
가족, 자녀돕기	3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3.2
변호사 선임	-	-	300,000	-	300,000	1.1
수수료	4,400	3,500	2,600	2,600	13,100	0.04
교통비	35,300	14,000	-	17,000	66,300	0.2
부조금	187,000	50,000	50,000	50,000	337,000	1.2
차용분 갚음	1,000,000	-	-	-	1,000,000	3.6
총계	7,329,120	5,536,600	6,322,830	8,540,750	27,729,300	100

※ 양심수후원회 감사 내역 중 9, 10, 11, 12월 지출내역을 싣습니다. 감사는 진관스님, 윤성식 선생님께서 후원회의 전반적 사업내용과 회계업무 일체를 감사하며 후원회 사업목적에 잘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가리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남용하지 말라 /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지난해 6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인권단체와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사활동을 벌인바 있는 아비드후세인(유엔 인권위원회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씨가 유엔인권위 52차(96년 3월 열릴 예정) 회의에 보고할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국제사면위원회가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

부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안기부가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범의 경우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철폐하고 이들에게 가석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비드 후세인 씨는 세계인권선언과 국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45년을 불법구금

지난해 8월 1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김선명(71세, 만 43년 10개월), 안학섭(66세, 만 42년 5개월), 한장호(73세, 만 38년 9개월 구금) 선생님은 1월 23일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국방경비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십년간 불법감금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국방경비법이 1948년 7월 5일 공포, 법령호수 미상으로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로서 일부 법령집에 수록되어 마치 법률인 것처럼 집행되어 오다가 62년 1월 20일 경 균형법의 제정과 함께 일부조항이 폐지되었

다. 그러나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을 제정한 ‘조선과도입법의원’은 이미 48년 5월 19일 해산되었으므로 그 이후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법률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방경비법이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이상, 그것에 근거한 기소와 재판, 형의 선고와 같은 의형상의 행위가 어떤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95년 8월 15일까지 수감생활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감금’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월에 구속된 양심수

국가보안법 위반

이용인(전농 강원도연맹 정책실장), 김동규(관동대 전 학생회장) - 1월 11일

강원도경은 9일,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혐의로 이용인 씨 등 모두 7명을 긴급구속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어떠한 혐의도 나타나지 않자 검찰은 2명만을 구속하고 5명은 내보냈다. 풀려난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을 불법수사와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평기 이상호 김미자 박선아 김혜란(민정련 광주지부) - 1월 12일

김종문(경북대 94년 총학 부회장) - 1월 4일

주환성(광주대 94년 총학 부회장) - 1월 12일

최영조(광주대) - 1월 2일

박준근(전남대 동아리연합회장) - 1월 15일

박진영(조선대 총학 문예국장) - 1월 8일

폭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양성호(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채로(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준상(여수화력 조합원) 양명옥(한일병원 노조 총무) 박인기(한일병원 위원장 직무대행) 선민규(한전본사 노조원) 최용환(호남화력 조합원) - 김시자 분신대책위원회

최석주(전남대 95년 총학 투쟁국장) - 1월 22일

지난 8월, 5·18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여의도 민자당사를 점거시위로 구속되었던 현총련 결사대 소속 최석주 씨는 1월 22일,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소 준비를 하고 있던 최씨를 광주 남부경찰서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이 와서 최씨를 수감 중이던 영등포구치소에서 연행하였다. 95년 총학생회 투쟁국장을 하였던 최씨에게 집회 시위 주도 혐의로 다시 구속한 것이다.

제인권조약에 맞춰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 수감중인 정치범들에 대한 사상전향 공작을 중지할 것과 이들에 대한 제재를 중지할 것,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구속된 정치범의 석방, 지난 정권에서 정치범이 된 이들에 대한 재심을 보장할 것,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법을 개정할 것, 사법부는 재판과정에서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해 의사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지 않도록 할 것, 수감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번 유엔인권위원회 심의결과 한국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보고서에 기초하여 한 국정부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게 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 워싱턴 수도장로교회, 양심수들에게 겨울용품 보내기 캠페인

몇년째 고난받는 조국의 양심수들을 위해 성원해 온 워싱턴 수도장로교회(조명철 목사) 신앙공동체에서는 94년 서화전에 이어 95년 겨울용품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 지난해 11, 12월에 모두 2028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귀한 성금은 보내주신 뜻에 따라 값있게 쓰여질 것입니다.

- 1월 들어 출소 장기수 선생님 4분이 입원하여 총 700,000원을 지원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북에 사시는 박문성 회원께서 성금 1,0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큰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한양대 물리학과 85학번 모임(대표 심창용)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해 써달라며 800,000원을 모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대전교도소에 28년째 갇혀있는 양정호 선생님(66세)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가신님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양선생님께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 김도한 선생님이 사당의원 301호에 입원 치료중이십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권양섭 선생님이 보라매 병원에서 퇴원을 해 맥에서 치료중이십니다. (전화 381-3452)
- 손일순 배경석 회원이 3월 9일 서울시립대학교 노천극장에서 혼례를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 안소영 회원이 [후원회소식] 편집위원으로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 영지버섯을 판매합니다.

전대협 제4기 의장인 송갑석 군의 어머니 정양엽(구학협 부회장)님이 고향 전남 고흥군 포두에서 온갖 정성을 다해 직접 농사를 지은 자연산 우리 영지버섯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만병 통치, 무병장수를 위해 즐겨 마시던, 불로초라 불리는 영지버섯은 25,000원에 판매합니다.

연락처 : 763-2606

- 임종석(전대협 제3기 의장)군과 김소희 회원(환경운동연합)이 3월 9일 오후 2시, 한양대 백남음 악관에서 혼례를 올립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이미정(종로구 동숭동)

장은혜(경남 거제시)

한승현(중구 태평로 2가)

허성화(부천시 원미구)

박민철(노원구 월계3동)

김현숙(성동구 도선동)

김선경 이재희(마포구 성산동)

정현철(영등포구 신길3동)

박문식(경기도 의왕시)

김상옥(경기도 군포시)

조백선(강남구 방배동)

백운주(경기도 광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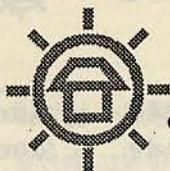
동국대 사범대 지리교육과 동기모임(김정수 외)

이소영(부천시 고강동)

김광법(광진구 구의3동)

전연옥(수원시 매탄동)

남겸숙(안양시 동안구)



양심수후원회원을 찾습니다

국민의 땀과 힘에 의해

이땅에도 군사독재가 끝장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문민정부는

국민들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쳐버리고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800명이 넘는 양심수를 만들었으며

지금도 감옥안에는 400여명이 넘는 양심수들이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심수 중에는 적게는 10년, 심지어는

38년동안이나 갇혀있는 장기수가 68명이나 됩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가슴아픈 현실이 끝나지 않는것을

우리모두의 무관심과 노력부족때문이라는 반성을 하며

지난 1989년 3월 19일 150여명이 모여 첫걸음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손길 뒹지않고 헛빛 한점 자유롭게 맛볼 수 없는 분들께

감옥밖에 사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정성과 관심은

큰 기쁨과 삶의 희망으로 될 것입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로 가는 작은 걸음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양심수 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 40년 동안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 분들과
 께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합니다.
 -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출
 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의탁할 곳이 없는 양심수, 출소장기수 분들과 자매결연
 을 추진합니다.
- 이용하실 송금구좌
 -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 신탕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 농 협 053-01-112692 (권오현양심수)
 - 지로번호 7619407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종로구 창신 2동 592-7
Tel. 763-2606 Fax. 745-5604